

# 술로 들여다 본 한국인의 삶과 문화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술, 문화를 빛다' 기획전

일제에 의해 사라진 가양주 만나고  
삼학 소주·진양주 등 남도 술 재조명  
두견주·창포주·국화주... 세시주 재현  
11일~5월 21일 유물·자료 200점 전시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지역 전통주를 조명하는 기획전 '술, 문화를 빛다'를 11일~5월21일 연다. 사진은 1970년대 선술집을 재현한 모습.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목포삼학양주주식회사 청주 광고



광주주조 청주 '국일광' 술병



◀양조주를 증류시켜 소주를 만들 때 쓰는 소줏고리.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술을 빚어 제사상에 올렸다. 한해 동안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술을 올리는 행위는 조상에 대한 예의였다.

전통주에 위기가 찾아온 건 일제강점기 세금을 목적으로 1916년 주세법을 시행하면서부터다. 술은 집이 아닌 양조장에서 만들어졌고 각 집이 가지고 있던 맛있게 술을 빚는 방법은 점차 사라졌다.

일제가 주세법을 시행한지 100년이 지난 현재, 우리 전통주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술, 문화를 빛다' 기획전을 11일부터 5월21일까지 개최한다.

총 4부로 나뉜 이번 전시는 유물·자료 200여점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술을 살펴본다.

제1부 '우리 술의 일대기'에서는 우리나라 술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소개한다.

양조기술 태동기인 삼국 시대부터 양조법 기반이 형성된 고려 시대, 가양주(家釀酒·집에서 담근 술) 전성기를 이룬 조선 시대 술 문화를 전시한다. 또 전통주 명맥이 단절됐던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전통주가 부활한 오늘날까지 역사를 되돌아본다.

술의 제조와 판매를 통제하려 했던 일제 주세정책을 알 수 있는 '자가용주 제조면허증'과 '주류품질회참가신청서' 등 희귀자료도 살펴볼 수 있다.

제2부 '술 익는 남도'에는 재료와 도구, 술을 빚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사진자료를 배치했다.

누룩과 누룩틀을 비롯해 지금은 보기 힘든 소줏고리(양조주를 증류시켜 소주를 만들 때 쓰는 용기) 등을 볼 수 있다. 기초적인 발효부터 증류, 혼양주까지 점차 발전한 남도 주조기법을 설명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남 진양주, 진도 홍주, 보성 강하주, 정읍 죽령고 등을 전시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관가에서 매질을 심하게 당한 녹두장군 전봉준이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죽령고, 청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한여름 더위를 이겨냈다는 강하주 등 술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준다.



누룩틀

또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전통주 현황도 배치한다.

제3부는 '문화로 빛은 술'이 주제다. 술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조명한다.

이라크에서 만들어져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 온 소주는 처음엔 약으로 사용됐다. 술은 또 신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도 했다.

술에 담긴 관혼상제의 의미, 향음주례(鄉飲酒禮·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을 초청해 술을 마시는 잔치)와 만두례(는 매기 때 술을 나누는 일) 등을 살펴본다.

그밖에 술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풍류 문화를 소개하고 계절에 따라 만들어진 두견주·창포주·국화주 등 전통 세시주를 재현해 보여준다.

근현대 우리 지역 주조의 역사와 생활상 변화를 들여다보는 제4부 '술이 깃든 풍경'에는 1970년대 선술집을 재현해 눈길을 끈다.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 국밥을 끓이는 가마솥, 시커멓게 그을린 벽 등 추억을 자극한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광주주조주식회사의 청주 '기루니고'(菊日光)와 오오츠(大津) 주조장의 청주를 집중 조명한다. 비싼 가격으로 당시 서민들은 쉽사리 즐길 수 없는 술이다.

또한 삼학소주를 만들었던 목포삼학양주주식회사의 청주 광고 등을 전시하며 대량 생산체제에서의 술 문화를 이야기한다. 문의 062-613-536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영암하정웅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10월 8일까지 하정웅 명품선·7월 2일까지 '이강하'전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하정웅컬렉션 명품선 '수집 혹은 기억' 특별전과 지역작가 추모전 '이강하, 영암을 그리다'를 연다.

10월8일까지 열리는 '수집 혹은 기억'은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영암군 홍보대사가 기증한 3700여점 중 국내외 추상화 작품 100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마르크 샤갈의 '연인들의 꽃다발', 호안 미로 'SERIEIII' 등 외국 유명작가 작품부터 이우환 '다이얼로그', 박서보 '무제', 정성화 'WORK' 등 국내 유명작가 작품이 출품된다. 또 천경자 '아마존강의 여인', 오승운 '해변' 등 지역 출신 작가 작품도 전시한다.

7월2일까지 열리는 '이강하, 영암을 그리다'전은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난 영암 출신 고(故) 이강하 작가를 조명한다. 크게 영암의 1970~80년대 풍경과 사람들의 삶, 작가의 발자취로 색선을 나눠 진행한다.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영암을 주제로 한 미공개 작품부터 한대리 분교에서 마지막으로 그린 '국사봉의 아침' 등을 만날 수 있다.

호남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작가인 이강하 작가는 1980년 남백회를 창립해 이끌었고, 목우회와 한국파스텔작가회, 선과 색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전시에서 출품된 1980년대 '남도의 맥(脈)' 시리즈와 '영산강과 사람들' 시리즈는 정감어린 남도 모습을 보여 주고 1990년대 '무등산'과 누드 작품은 사실적 표현이 돋보인다. 문의 061-470-68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강하 작 '국사봉의 아침'

## 창비, 세월호 기록집 '다시 봄이...' 전자책 무료 배포

출판사 창비는 세월호 참사 3주기(16일)를 맞아 세월호 생존학생과 희생자 형제자매의 육성 기록집 '다시 봄이 올 거예요'의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20일까지 11일간 모든 인터넷서점과 전자책 판매처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는 세월호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 11명과 희생자 형제자매 15명의 육성을 정리한 책이다. 창비는 앞서 1월에도 세월호 참사 1천일을 맞아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전자책을 일주일간 무료로 배포했다. 창비 관계자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전자책 무료 배포 당시 일주일간 총 다운로드(내려받기) 횟수가 4만건에 달했다"면서 "이번 3주기 때도 더 많은 시민이 희생자들의 아픔을 책 읽기를 통해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광남연선 18)

**아프리카 신나조각**

아프리카 조각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62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7. 4. 19(수) ~ 5. 30(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7년 4월 5일(수) ~ 4월 12일(수)

**신청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7년 5월 15일(월) ~ 5월 17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19일(수) ~ 5월 30일(화)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7년 4월 17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개인 -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 -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